

MB 워터파크? 이젠 제2의 촛불이다!

8 이명익 기자 | ⓒ 승인 2011.11.24 13:39

1만명 모인 한미 FTA 비준 철회 시위대. 경찰 영하 날씨에 물대포 발사 강경진압



▲ 한미 FTA 비준 철회를 외치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2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뿌리고 있다. 이명익기자



▲ 22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 직사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22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 직사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22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 직사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22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 직사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22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 직사하며 강제진압에 나서고 있다.이명익기자



▲ 22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 직사하며 강제진압에 나서고 있다.이명익기자



▲ 22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 직사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22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 22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에 1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이명익기자



이명익 기자 lmi1230@nate.com